

#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주력

### 아동친화 예산서 발간... 총 1795억원 규모 전체 예산 대비 11.6% 차지

익산시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아이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올해 아동 친화 사업규모는 총 1천 795억원으로 이는 전체 시 예산 대비 11.6%를 차지한다. 연간 아동 1인당 예산은 492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79만원 상승했다.

아동 권리 증진 및 관련 예산 사업 분석·진단을 위해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38개 부서가 총 308개 사업이 진행된다.

시는 아동친화도 6개와 아동권리 4대 영역 중심으로 분류해 '아동친화 예산서'를 발간했다.

아동친화도 6개 분야는 안전과 보호, 교육환경, 보건과 사회서비스, 가

정생활환경,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등이다.

분야별 예산으로 안전과 보호가 566억원(31.5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교육환경 455억원(25.39%), 보건과 사회서비스 295억원(16.45%), 가정생활환경이 271억원(15.12%), 놀이와 여가 194억원(10.81%), 참여와 시민권 12억원(0.69%)등의 순을 보였다.

특히 전년도 아동친화정책사업의 확대가 요구되었던 놀이와 여가, 가정생활환경 부분은 전년도 예산 대비 각각 91억원(4.3%), 49억(1.07%)이 증가했다.

또한 아동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생애 놀이터 조성사업, 놀이 체험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아동친화예산서는 매년 상반기에 발행되며,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아동친화도시분야)에 공개해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과 모니터링에 활용될 계획이다.

정현율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유네스코 세계기준으로 면밀하게 살펴 아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총괄적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아동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정현율 익산시장이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시책 추진을 진두지휘한다.

## “청렴 행정 구현 위해 노력해 달라”

### 정현율시장, '청렴 익산, 청렴 추진단' 진두지휘

정현율 익산시장이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시책 추진을 진두지휘한다.

시는 지난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 도시 구현을 위해 '청렴 익산, 청렴 추진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추진단은 내부협업체로 주요 간부공무원이 청렴 시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주도하고자 구성했다.

회의는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 추진계획에 대한 중점 과제 및 추진 체계를 공유하고 취약 분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세부 내용은 청렴 익산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달성이라는 목표 설정하에

청렴·부패 취약 분야 발굴 개선, 민·관 청렴 공감대 형성, 청렴문화 공직사회 확산의 3대 추진전략과 15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담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와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 고유의 업무특성을 반영했다. 부패 발생 상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분야별 부패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청렴 취약분야 개선 의지를 공유했다.

정현율 시장은 "시의 청렴 기반을 확보하고 청렴도를 향상하여 시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간부공무원들의 솔선수범한 청렴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수산자원 회복·증강 위한 사업 돌입

### 수산종자 방류·서식장 조성사업 등

군산시가 연안해역의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연안해역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종자를 방류하고 수산자원 산란서식장을 조성하는 등 수산자원 증강에 힘쓰고 있다.

시는 지난해 수산종자 방류사업으로 5억 4천여만원을 투입해 관내 연안해역에 종자 약 190만마리를 방류했다.

이어 올해에도 8억 7천만원의 예산

으로 넘쳐, 조피불락, 감성돔 등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자를 방류할 예정이다.

더불어 주꾸미, 해삼, 박대 등의 종자를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무상으로 분양받아 방류하는 등 수산종자 방류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또, 수산자원(감오징어)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을 완료했으며, 오는 12월경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감오징어 산란 서식장을 2024년부터 5년간(50억) 관내 해역에 조성할 계획이다.

이성원 어업진흥과장은 "우리시 해역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하여 수산종자 방류와 산란서식장 조성 등 다양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대처로 어업질서의 확립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증진 '박차'

익산시는 취약계층의 가스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추진해 에너지 복지증진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시설개선 지원대상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먼저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은 금속배관이 설치된 가구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스밸브가 자동 차단되는 '가스타이머'를 설치해 준다. 가스레인지 등의 과열을 방지해 가정 내 화재위험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벽체 단열,

창호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 등에 가구당 평균 242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난방시설 무상 지원을 통해 에너지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한국에너지재단과 연계해 진행 중이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60세 이상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가구다.

해당 사업은 모두 읍·면·동에서 신청받고 있으며,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만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가스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LPG 용기 사용자 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일반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LPG액화석유가스 용기와 연결된 고무호스

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 용기 사용자 가구 시설개선사업은 LPG 용기 사용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노후 가스시설은 사고 발생 위험이 크며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길 바란다"며 "난방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계절에 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난방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는 서둘러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군산대 조선공학과, 기술지원 사업 주관기관 선정

국립군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인 특수목적선 친환경·지능형 부품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북지역 중소형 및 특수 선박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해상에서의 운실가스 감축 및 탄소 중립 확산 정책을 위한 특수목적선의 친환경·지능형 부품 개발에 요구되는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연간 총 3.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고 친환경 소재, 자율운항기술, 인공지능기술, 빅데이터기술, 센서기술, 소형모듈원자로(SMR)기술 등이 융합된 제품 분야에 군산대학교의 다양한 전문연구인력의 맞춤형 기술지

원이 수행될 예정이다.

또한 군산대학교 ICT융합조선해양연구원을 주축으로 군산대학교 고등기술융합연구원이 협력하여 특수목적선 박과 연관된 시제품 제작, 특허 지원, 성능검증 및 기술교류 등의 사업과 고등기술도 추진될 계획이다.

사업을 주관하는 정한구 교수(군산대 ICT융합조선해양연구원 조선해양공학과)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과 함께 이번 기술지원 사업을 계기로 전북의 조선해양산업이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선박 중심의 친환경·지능형 부품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R&D 생태계 조성을 위해 조선분야의 전문인력양성 및 발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의회-시, 도시관리공단 인사청문 도입 협약

익산시의회와 익산시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함에 있어 정책검증 청문회를 도입하는 익산시 도리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협약을 체결했다.

18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실시됐다.

이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하기 전 시의회에 후보자의 정책검증 청문을 요청하도록 하는 익산시의회의 제안을 익산시가 받아들여서 이뤄졌다.

협약서에 따르면 익산시장이 청문 요청서를 제출하면 시의회는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해 청문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문을 완료 해야 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LED바닥신호등 안전도시 '앞장'

익산시가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LED바닥신호등을 설치해 안전한 도시조성에 앞장선다.

최근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익산시는 교차로 보행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높은 LED바닥신호등을 대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바닥 신호등'이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대기선에 LED패널을 설치, 보행자가 바닥을 보고 있어도 신호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교통안전시설 보조 장치다.

시는 '바닥 신호등' 설치를 위해 △롯데시네마 사거리 △모현초 사거리 △북부시장 사거리 △한별초 사거리 △삼성동 주민센터 사거리에 올해 하반기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 2020년부터 '바닥 신호등'을 점진적으로 늘려,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원광대병원, 전지랜드 사거리, 초등학교 주변 등 현재까지 25곳에 설치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